

近世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金 鎔 均*

(e-mail : kygyun@cau.ac.kr)

目次

1. 序 論
 2. 調査 資料 및 考察 方法
 - 2.1 調査 資料
 - 2.2 考察 方法
 3.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 實態
 4. 四段化의 전체적인 傾向
 5. 結 論
-
-

1. 序 論

본고는 近世前期¹⁾, 특히 日本語 活用形式(二段活用の 一段化, サ行下二段活用の 四段化 등)의 변화 고찰 시 주목되는 시기인 元禄~享保期(1688~1735)의 上方語(이하, ‘前期 上方語’라고 약칭함)에 나타나는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現象에 대하여, 遲速 차이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傾向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現象이란 近世 日本語 특히 上方語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사실로서, サ行下二段活用動詞(「合する」「遣(お

* 中央大學校 日語學科 助教授, 日本語學

1) 본고에서 사용한 近世前期는 宝曆期(1751~1763)를 경계로 하여 이전을 前期, 이후를 後期로 크게 분류한 日本語史의 일반적인 시대 구분법(飛田良文編(2007) 『日本語学研究事典』, 明治書院, pp.330~332<蜂谷清人, 鈴木丹士郎 執筆>)에 따른 것이다.

こ)する」「上する」「任する)가 四段活用(「合す」「遣(おこ)す2)」「上す」「任す」3)으로 형태적인 변화를 이룬 것을 의미하는데, 그 변화의 원인은 奈良時代(710~794) 이후 정착되어 당시 세력이 강한 サ行四段活用動詞(「照らす」「悩ます」 등)의 類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와 같은 現象이 주목되는 이유는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경우 당시 上方語에서는 四段活用이, 江戸語에서는 下一段活用이 일반적이라는 지적4)과 같이 東西 兩 方言 간의 대립이 보인다는 점과, 당시 일반적인 下二段活用動詞의 下一段化 傾向과는 달리 四段化의 傾向5)을 보인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從來, 前期 上方語를 대상으로 한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연구는 文法史에서의 주목도에 비하여 의외로 적은데,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湯沢幸吉郎6)와 山県浩7)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용례의 열거 내지는 편중된 單語에만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자의 경우는 제한적인 자료를 통한 부분적인 용례의 열거 수준에서, 후자의 경우는 「合する」의 四段化에 대하여 분석적인 열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文法史의 체계적인 기술을 위한 본격적인 고찰 즉 單語, 活用形, 文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四段化 全體像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2) 일반적으로 上方語에서는 「遣(おこ)する」가, 東國語(江戸語)에서는 「遣(よこ)する」가 사용된다고 일컬어지는데 본고에서의 조사 대상인 上方語資料 33種을 분석한 결과, 전자의 용례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후자의 용례도 예외적으로 資料[24]에 1例 보인다.

3) 본고에서는 サ行下二段活用動詞 중에서 四段化의 傾向을 보이는 動詞에만 한정하여 검토한다. 따라서 「直す」「崩す」「渡す」 등과 같이 본래 サ行四段活用動詞인 경우와, 「聞かす」「知らす」「取らす」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日本語史 關係書(湯沢幸吉郎(1982) 『徳川時代言語の研究』, 風間書房, pp.350~360)에서 四段活用動詞의 未然形에 使役 助動詞 「す」가 접속된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 サ行下二段活用動詞에는 「失する」「似する」「馳する」「啞する」「瘦する」「寄する」 등과 같은 語幹 一音節動詞도 존재하지만, 湯沢幸吉郎(1982)의 『徳川時代言語の研究』(風間書房, p.78)에 지적된 바와 같이 당시 자료에서는 四段化例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만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鈴木丹士郎(1985) 「解説」 『近世語』(論集日本語研究14), 有精堂, p.301

5) 단,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경우 四段化가 아닌 下一段化 傾向을 보이는 용례도 있지만, 이와 같은 용례는 본고에서의 조사 대상인 上方語資料 33種을 분석한 결과, 資料[8][9][16]에 「合せる」가 3例, [12]에 「任せる」가 1例가 등장하여 총 4例에 불과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8]つまづま合せる弁舌に、口入食うた顔付にて、(心中重井筒, 359-15)

[9]この小まんが手を合せる。(丹波与作待夜の 小室節, 465-5)

[12]これの見世をまかせるほどの久しい者、(心中刃は氷の朔日, 547-13)

[16]みな、島八様のお道理ちや。これ、手を合せる、(冥途の飛脚, 52-7)

6) 湯沢幸吉郎, 前掲書(3), pp.59~78

7) 山県浩(1982) 活用型の変化から見た上方絵入狂言本 -サ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の場合- 『文献探究』 10, pp.42~43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 의거하면서 前期 上方語資料 중에서 日本語史의 연구 시, 口語資料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자주 이용되는 元祿~享保期の 淨瑠璃를 중심으로 한 33種을 조사 대상으로, 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四段化의 實態와 진행 정도, 그리고 이를 통한 전체적인 傾向을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活用方式의 관점에서 보면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와 마찬가지로, 당시 混合變化에서 強變化로 동일한 변화 과정을 보이는 라行下二段活用(「おつしやるる」「くだざるる」「しやるる」「なさるる」「めざるる」)의 四段化와의 遲速 차이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現代 日本語에서도 사용되는 五段活用動詞 「合す」 上す 「任す」 등의 원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上方語史와 文法史의 체계적인 연구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와 성격이 비슷한 라行下二段活用助動詞 (「する」「さする」)의 四段化 傾向⁸⁾과의 비교를 위한 前 단계의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調査 資料 및 考察 方法

2.1 調査 資料

調査 資料는 合する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의 下二段活用動詞例와 四段化例가 등장하는 元祿~享保期の 前期 上方語資料[1]~[33]의 33種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成立(刊行)時期 별로 보면 元祿期(1688~1703) 資料가 [1]의 1種, 宝永期(1704~1710) 資料가 [2]~[15]의 14種, 正徳期(1711~1715) 資料가 [16]~[22]의 7種, 享保期(1716~1735) 資料가 [23]~[33]의 11種이다. 그리고 資料 별로 보면 版本狂言記類가 1種([32])이고, 나머지는 모두 淨瑠璃類로 近松 世話淨瑠璃가 24種([1][2][3][4][5][6][7][8][9][10][12][13][16][17][18][19][21][22][23][24][25][27][28][29]), 紀海音 世話淨瑠璃가 7種([11][14][15][20][26][30][33]), 時代淨瑠璃가 1種([31])이다. 이 중에서 版本狂言記類([32])는 『岩波新日本古典文学大系58』, 淨瑠璃類인 近松 世話淨瑠璃는 『小学館日本古典文学全集44』와 『小学館日本古典文学全集45』, 紀海音 世話淨瑠璃([14])와 時代淨瑠璃([31])는 『校訂紀海音淨瑠璃集』, 나머지 紀海音 世話淨瑠璃([11][15][20][26][30][33])는 『小学館日本古典文学全集45』를 底本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본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前期 上方語資料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8) 山県浩, 前掲書(7), pp.40~43

- | | | |
|---------------------|-----------------------|------------------------|
| [1]『曾根崎心中』(1703) | [2]『薩摩歌』(1704) | [3]『心中二枚繪草紙』(1706) |
| [4]『卯月の紅葉』(1706) | [5]『堀川波鼓』(1707) | [6]『五十年忌歌念仏』(1707) |
| [7]『卯月の潤色』(1707) | [8]『心中重井筒』(1707) | [9]『丹波与作待夜の小屋節』(1708) |
| [10]『淀鯉出世滝徳』(1708) | [11]『梔久末松山』(1708) | [12]『心中刃は氷の朔日』(1709) |
| [13]『心中万年草』(1710) | [14]『難波橋心中』(1710) | [15]『袂の白しほり』(1710?) |
| [16]『冥途の飛脚』(1711) | [17]『今宮の心中』(1711) | [18]『夕露阿波鳴渡』(1712) |
| [19]『長町女腹切』(1712) | [20]『傾城三度笠』(1713) | [21]『大経師昔暦』(1715) |
| [22]『生玉心中』(1715) | [23]『鑑の権三重帷子』(1717) | [24]『山崎与次兵衛壽の門松』(1718) |
| [25]『博多小女郎波枕』(1718) | [26]『三勝半七二十五年忌』(1719) | [27]『心中天の網島』(1720) |
| [28]『女殺油地獄』(1721) | [29]『心中宵庚申』(1722) | [30]『心中ニツ腹帯』(1722) |
| [31]『傾城無間鐘』(1723) | [32]『狂言記拾遺』(1730) | [33]『八百屋お七』(1731?) |

2.2 考察 方法

考察 方法은 資料 33種에 등장하는 サ行下二段活用動詞例와 四段化例⁹⁾를 모두 추출한 다음에, 單語 별로 「合する」遣する」上する 任する 로 나누어 분석함과 동시에, 單純動詞와 複合動詞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活用形에서는 未然形, 連用形, 終止·連体形, 已然形, 命令形으로, 文體的인 면에서는 地文과 會話文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傾向을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同種 資料인 淨瑠璃類 32種만을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술한 混合變化에서 強變化로 동일한 변화 과정을 보이는 ㄱ行下二段活用の 四段化와 遲速 차이의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9) 단, 「合て」 등과 같이 活用 語尾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인지, 四段活用動詞인지 판별이 불가능한 용례와, 당시 「-(さ)しやる」「-(さ)しや」 등과 같이 サ行下二段活用動詞 連用形の 변화형인지, 四段活用動詞의 連用形인지 판별이 어려운 용례, 「-(さ)せし(過去)」 등과 같이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連用形인지, 四段活用動詞의 已然形인지 판별이 어려운 용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당시는 假定條件法이 「未然形+ば」에서 「已然形+ば」로 이행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上せば」 등과 같이 接續助詞 「ば」가 접속되어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未然形인지, 四段活用動詞의 已然形인지 판별이 어려운 용례와, 「合すべし」 등과 같이 推量의 助動詞 「べし」가 접속되어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旧終止形인지, 四段活用動詞의 終止·連体形인지 판별이 어려운 용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 實態

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의 구체적인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元祿~享保期の 資料[1]~[33]에 등장하는 合する,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의 サ行下二段活用動詞例와 四段化例를 각 資料 별로 地文과 會話文 및 活用形으로 분류하여 <표1>로 나타내고, 또한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傾向을 파악하기 위하여 會話文의 四段化率을 <표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 實態

資料				活用				資料				活用								
				合する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合する		遣する		上する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元祿	[1]曾根崎心中(1703)	地	用	6						宝	[9]丹波与作待夜の小室節(1708)	地	用	3						
		會	用									已	1							
	[2]薩摩歌(1704)	地	用	2					1			會	未		1				1	
		會	用	3									已							
	[3]心中二枚絵草紙(1706)	地	用	1							會	未								
		會	用	1								用	3							1
	[4]卯月の紅葉(1706)	地	用	5							會	未		1						
		會	用	1								用	3							1
	[5]堀川波鼓(1707)	地	用	4							會	未								
		會	用	1			1		1			用	1							1
	[6]五十年忌歌念仏(1707)	地	用	7							會	[12]心中刃は氷の朔日(1709)	未	1					2	
			止·休	2									用	2						
		會	用	4				2	3				未							
	[7]卯月の潤色(1707)	地	用	1							會	[13]心中万年草(1710)	未							
已			1						用	2						1	1			
[8]心中重井筒(1707)	會	未	1						會	[14]難波橋心中(1710)	止·休									
		用	1				1	1			地	止·休	1							
		止·休					1				會	用	1							

<표2>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率(會話文)

活用形	合する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合計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未然形 (四段化率)	8	6		7		4	1	2	9	19
		42.9		100		100		66.7		67.9
連用形 (四段化率)	47	1		7	2	10	18		67	18
		2.1		100		83.3		0		21.2
終止・連体形 (四段化率)	5	5		6		3	2	2	7	16
		50.0		100		100		50.0		69.6
已然形 (四段化率)	3		1						4	
		0		0						0
命令形 (四段化率)				8				10		18
				100				100		100
計 (四段化率)	63	12	1	28	2	17	21	14	87	71
		16.0		96.6		89.5		40.0		44.9

4. 四段化의 전체적인 傾向

전술한 <표1>의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 實態와 <표2>의 四段化率, 그리고 資料 33種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통하여 인정되는, 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의 전체적인 傾向에 대하여 會話文¹⁰⁾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單語 별로 보면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合する」의 순으로 四段化가 진행되고 있다.
- ②單純動詞의 四段化 진행 속도는 複合動詞의 四段化보다 빠르다.
- ③活用形에서 보면 命令形, 終止・連体形・未然形, 連用形の 순으로 四段化가 진행되고 있다.¹¹⁾
- ④文體의인 면에서 보면 會話文의 四段化 진행 속도는 地文의 四段化보다 빠르다.
- ⑤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 진행 속도는 ㄱ行下二段活用的 四段化보다 느리다.

먼저 傾向①은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 진행 과정 속에서 單語 간의 遲

10) 단, 地文의 경우는 전술한 <표1>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용례수가 적어, 文體 간의 비교 외에 세부적인 傾向까지 검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11) 단, 已然形의 경우 전술한 <표1>과 <표2>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 외 活用形에 비하여 용례수가 적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速 차이가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같은 傾向은 전술한 <표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傾向으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예를 들면 遣する (96.6%), 「上する (89.5%), 「任する (40.0%), 「合する (16.0%)의 四段化率 순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傾向은 각 單語의 活用形 간 비교를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傾向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성격을 같이 하는 同種 資料를 중심으로 좀 더 분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술한 <표1>을 토대로 同種 資料 즉, 淨瑠璃類 32種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3>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淨瑠璃의 單語에 따른 四段化率(會話文)

資料	單語	合する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淨瑠璃 (四段化率)		59	11		7	2	15	21	14
			15.7		100		88.2		40.0

<표3>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역시 전술한 <표2>의 분석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遣する (100%), 「上する」(88.2%), 「任する (40.0%), 合する」(15.7%)의 四段化率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傾向①의 반영 즉, 單語 간의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この勘十郎がよい時に居合せて、……氣遣ひなことはなし、勘十郎に任されよ。

(五十年忌歌念仏, 285-4)

[6] '幸便に任せ、一筆啓上せしめ候、……すなはち請取手形、殘金十九兩上し申し候。

(상동, 315-17)

[8]今夜上して明日の間に合せねば、きつう叶はぬ大事の用、(心中重井筒, 371-16)

[32]それはそれは酒をおこす事ではござらぬ……身共も手前にあり合せぬ、(狂言記拾遺, 561-9)

이 중에서 資料[6]은 「任する」와 「合する」, [6] '는 「上する」와 「任する」, [8]은 上する와 合する」, [32]는 遣する 와 合する 간의 四段化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예문이다. 한편, 遣する 와 上する 의 진일보한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四段化例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예문이 있어 주목을 끄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2]それははや持して^{のほ}上^{のほ}しました……はや先へ^{のほ}上^{のほ}させられたか、それは過分にござる、
(狂言記拾遺, 510-7)

[32]其文をおこせ、見よふ、……いにしへの事を忘れずに書いておこされた(상동, 571-15)

이와 같은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傾向①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각 單語 間に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의 四段化 진행 속도가 「合する」 의 四段化보다 빠른 원인은 單語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원래 한 單語로 이루어져 비교적 변화가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반하여, 후자는 「合+する」 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래의 두 單語 의식이 작용하여 변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遣する 의 四段化가 「上する」 의 四段化보다, 「上する」 의 四段化가 任する」의 四段化보다 빠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單語 변화의 역사적 흐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적으로 四段化의 추이를 보면 遣する」의 四段化例가 이미 鎌倉時代(1192~1333)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¹²⁾, 뒤를 이어 「上する」의 四段化例가 室町時代(1333~1603)에 보이는데¹³⁾, 이와 같은 상황이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 점점 정착되어 결국 후대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傾向②는 動詞 내부에서도 單純動詞와 複合動詞 間に 있어서 四段化의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먼저 傾向②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單純動詞와 複合動詞 간의 비교가 필요한데,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표4>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單純動詞와 複合動詞의 四段化率(會話文)

語構成 \ 活用	合する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合計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單純動詞 (四段化率)	25	7	1	28	1	13	17	14	44	62
		21.9		96.6		92.9		45.2		58.5
複合動詞 (四段化率)	38	5			1	4	4		43	9
		11.6				80.0		0		17.3

12) 山口明穂·秋本守英編(2001) 『日本語文法大辞典』, 明治書院, p.92(藤井俊博 執筆)

13) 『時代別国語大辞典室町時代編4』(2000:三省堂, p.572)에 의하면 室町時代の 資料 『天草版平家物語』(1592)에 「上する」의 四段化例가 지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單純動詞의 四段化率(58.5%)은 複合動詞의 四段化率(17.3%)보다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이와 같은 우위는 複合動詞의 용례가 보이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한 「遣する」를 제외한 각 單語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는 만큼 특징적인 傾向으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예를 들면 單純動詞인 「合する」(21.9%), 「上する」(92.9%), 「任する」(45.2%)의 四段化率は 複合動詞인 「合する」(11.6%), 「上する」(80.0%), 「任する」(0%)의 四段化率보다 우위를 보인다.

또한 傾向②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성격을 같이 하는 同種 資料 즉, 淨瑠璃類 32種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필요한데, 그 결과를 <표5>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5> 淨瑠璃의 單純動詞와 複合動詞의 四段化率(會話文)

活用 語構成		合する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合計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淨瑠璃	單純動詞	25	7		7	1	11	17	14	43	39
	(四段化率)		21.9		100		91.7		45.2		47.6
	複合動詞	34	4			1	4	4		39	8
	(四段化率)		10.5				80.0		0		17.0

<표5>를 보면 역시 <표4>의 분석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單純動詞의 四段化率(47.6%)은 複合動詞의 四段化率(17.0%)보다 여전히 현저한 우위를 보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複合動詞의 용례가 보이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한 「遣する」를 제외한, 각 單語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單純動詞인 「合する」(21.9%), 「上する」(91.7%), 「任する」(45.2%)의 四段化率は 複合動詞인 「合する」(10.5%), 「上する」(80.0%), 「任する」(0%)의 四段化率보다 우위를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單純動詞의 四段化 진행 속도는 複合動詞의 四段化보다 빠르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遲速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 주된 원인은 音節數의 多少에 따른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單純動詞의 경우 複合動詞에 비하여 音節數가 적어 그 변화 속도가 빨랐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정은 少音節動詞의 一段化 진행 속도가 多音節動詞의 一段化보다 빠르게 진행된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 傾向¹⁴⁾과, 下一段活用動詞 「蹴る」의 四段化 경우 單純動詞에 비하여 複合動詞에 下一段活用の 殘存 傾向이

14) 金鎔均(2003) 『江戶中期 이후 上方語에 나타나는 二段活用の 一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一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55-1, 韓國日本學會, p.26

강하다¹⁵⁾는 지적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傾向③은 活用形 간에 있어서 四段化의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같은 傾向은 전술한 <표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傾向으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活用形에 걸쳐 완료 양상을 보이는 「遣する」의 四段化率과, 終止·連体形(50.0%), 未然形(42.9%), 連用形(2.1%)의 四段化率 순으로 나타나는 「合する」, 終止·連体形(100%)·未然形(100%), 連用形(83.3%)의 四段化率 순으로 나타나는 「上する」, 命令形(100%), 未然形(66.7%), 終止·連体形(50.0%), 連用形(0%)의 四段化率 순으로 나타나는 「任する」와 같이 각 單語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命令形(100%), 終止·連体形(69.6%)·未然形(67.9%), 連用形(21.2%)의 四段化率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傾向③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성격을 같이 하는 同種資料 즉, 淨瑠璃類 32種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필요한데, 그 결과를 <표6>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6> 淨瑠璃의 活用形에 따른 四段化率(會話文)

資料	活用形		未然形		連用形		終止·連体形		命令形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淨瑠璃 (四段化率)	5	11	67	13	7	11				12
		68.8		16.3		61.1				100

<표6>을 보면 命令形(100%), 未然形(68.8%), 終止·連体形(61.1%), 連用形(16.3%)의 四段化率 순으로 나타난다. 전술한 <표2>의 분석 결과와 다른 점은 未然形の 四段化率(68.8%)이 終止·連体形の 四段化率(61.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終止·連体形에서 약간의 우위를, 각 單語 별로 보면 合する 에서는 終止·連体形이 우위를, 이와는 반대로 任する 에서는 未然形이 우위를 보이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당시 終止·連体形과 未然形 간에 있어서 뚜렷한 遲速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傾向③의 반영 즉, 活用形 간의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근접 또는 동일 인물에 의한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7](由兵衛)これ親に、^{へんかい}隱居様へまかせて、在所は^{へんかい}変改したがよい、(今宮の心中, 85-7)
 (由兵衛)こいつめを踏んでくれう、まかさつしやれど、上がるを見て、(상동, 88-1)

15) 坂口至(2001) 「近世中期上方歌舞伎脚本資料に見えるナ変・下一段の四段化について」『筑紫語学論叢・奥村三雄博士追悼記念論文集』, 風間書房, p.292

にかずてがた ひきあは
[25]荷数手形に引合せ渡ませうど、……荷物受取れ。まつかせ¹⁶⁾と

(博多小女郎波枕, 420-6)

[26]つまとつまとをしつかりむすびあはせつゆひあはす。(三勝半七二十五年忌, 283-2)

이 중에서 資料[17]은 未然形과 連用形, [25]는 命令形과 連用形, [26]은 終止·連体形과 連用形 간의 四段化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예문이다. 한편, 命令形の 진일보한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四段化例가 집중적으로 사용 되는 예문이 있어 주목을 끄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こ をめ
[25]まつかせ、込んだ、皆の衆ぬかるな。……下人が喚くまつかせ声、

(博多小女郎波枕, 421-8)

ぬ ぬ
[32]是非なくは着て居る物、脱いでおこせ……まづ其衣から脱いでおこせ、

(狂言記拾遺, 491-2)

그렇다면 命令形の 四段化 진행 속도가 未然形과 連用形 및 終止·連体形の 四段化보다, 終止·連体形の 四段化 진행 속도가 連用形の 四段化보다, 未然形の 四段化 진행 속도가 連用形の 四段化보다 빠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命令形の 四段化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원인으로, 예를 들면 任せい 任せよ → 「任せ의 변화 과정 속에서 語尾 い「よ의 탈락이 용이했다는 점과, 이와 마찬가지로 終止·連体形の 四段化 진행 속도가 連用形の 四段化보다 빠른 원인으로, 예를 들면 任する → 任す의 변화 과정 속에서 語尾 る의 탈락이 용이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命令形과 終止·連体形の 변화 속도가 그 외 活用形の 변화보다 빠르다는 사실은 이미 ㄱ행下二段活用の 四段化에서도 지적된다¹⁷⁾.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ㄱ행下二段活用の 四段化¹⁸⁾와는 달리 未然形の 四段化 진행 속도가 連用形の 四段化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단순히 취급 資料에 따른 우연한 결과인지, 또는 四段化의 흐름 속에서 近世前期에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인정되는 현상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금후 좀 더 資

16) 命令形인 「まかせ」의 강조형이다.

17) 坂梨隆三(1975)의 ㄱ행下二段活用の四段化(『国語と国文学』52-1, pp.52~53)에 의하면, ㄱ행下二段活用の 四段化 경우 命令形과 終止·連体形の 四段化 진행 속도가 未然形과 連用形の 四段化보다 빠른 원인으로, 전자는 語尾 いよ의 탈락이, 후자는 語尾 る의 탈락이 용이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18) 山県浩(1983)의 活用型の変化から見た上方絵入狂言本 -ㄱ행下二段活用の四段化の場合- (『文献探究』11, pp.66~69)에 의하면, ㄱ행下二段活用の 四段化 경우 命令形, 終止·連体形, 連用形, 未然形の 순으로 四段化가 진행된다고 지적된다.

료를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文體的인 면에서 나타나는 傾向④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地文과 會話文 간의 四段化率의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술한 <표1>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표7>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7> 地文과 會話文의 四段化率

文體	活用	合する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合計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地文 (四段化率)		106	12					21	1	127	13
			10.2						4.5		9.3
會話文 (四段化率)		63	12	1	28	2	17	21	14	87	71
			16.0		96.6		89.5		40.0		44.9

전체적으로 보면 會話文의 四段化率(44.9%)은 地文의 四段化率(9.3%)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우위는 地文에 용례가 보이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한 遣する 와 上する 를 제외한, 각 單語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는 만큼 특징적인 傾向으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예를 들면 會話文에 있어서 合する」의 四段化率(16.0%)과 任する 의 四段化率(40.0%)은 地文에 있어서 合する」의 四段化率(10.2%)과 「任する 의 四段化率(4.5%)보다 우위를 보인다.

또한 傾向④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성격을 같이 하는 同種 資料 즉, 淨瑠璃 32種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필요한데, 그 결과를 <표8>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8> 淨瑠璃의 地文과 會話文의 四段化率

文體	活用	合する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合計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淨瑠璃	地文 (四段化率)	105	11					18	1	123	12
			9.5						5.3		8.9
	會話文 (四段化率)	59	11		7	2	15	21	14	82	47
			15.7		100		88.2		40.0		36.4

<표8>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 역시 <표7>의 분석 결과와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전체적인 四段化率의 비교에서는 물론, 전술한 각 單語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會話文의 四段化率이 地文의 四段化率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傾向④의 반영 즉, 地文과 會話文 간의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主從顔を見合せ、互にはつと驚くうち、勝二郎赤面し、面目なや、恥づかしや、そちに
顔は合せれぬと、(淀鯉出世滝徳, 536-7)

진자가 地文의 용례, 후자가 會話文의 용례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地文의 四段化 진행 속도가 會話文의 四段化보다 느린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본래 地文의 성격 즉,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언어보다도 더욱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에 기인한다¹⁹⁾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傾向⑤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前期 上方語資料 중에서 본고에서 중심 자료로 사용한 近松 世話浄瑠璃 및 紀海音 世話浄瑠璃와의 비교가 필요 한데, 분석 결과를 <표9>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9> 라行下二段活用과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率(會話文)

資料	活用			資料	活用		
	ラ行下二段	四段	四段化率		サ行下二段	四段	四段化率
近松 世話浄瑠璃 17種(1703~1722) ²⁰⁾	208	253	54.9	近松 世話浄瑠璃 17種(1703~1722) ²¹⁾	51	25	32.9
紀海音 世話浄瑠璃 7種(1708~1731) ²²⁾	50	62	55.4	紀海音 世話浄瑠璃 7種(1708~1731)	10	7	41.2

<표9>를 보면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率이 라行下二段活用の 四段化率 보다 열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サ行下二段活用動詞에 있어서 近松 世話浄瑠璃의 四段化率(32.9%) 및 紀海音 世話浄瑠璃의 四段化率(41.2%)은 라行下二段活用に 있어서 近松 世話浄瑠璃의 四段化率(54.9%) 및 紀海音 世話浄瑠璃의 四段化率(55.4%)보다 열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傾向⑤의 반영 즉, サ行下二段活用動詞와 라行下二段活用 간의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とかこの惣兵衛も肌を合せ、羽交について廻らつしやれ、(淀鯉出世滝徳, 500-12)

19) 金銘均(2004)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 - (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20) 山県浩, 前掲書(18), p.67
 21) 본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近松 世話浄瑠璃 24種 중 前掲書(18)에서 대상으로 한 17種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7種([2][3][7][10][12][19][22])을 제외한, 동일한 資料 17種을 대상으로 하여 재분석한 결과이다.
 22) 金銘均(2008) 「紀海音의 世話浄瑠璃에 나타나는 라行下二段活用の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江戸 中期 上方語資料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25, 中央大學校 日本研究所, p.12

[13] 状も進^ませて、よいやうに、いづれも任^もすと……お暇^い貰^{ぬかぶくろ}うて、往^{ぬかぶくろ}なし^いやらば、糠袋はおれ
に^たく^らだ^ひされ (心中万年草, 398-16)

[22] まか^せて^うお^ぎけ^ひで^ひも^めも^し、飲^ひみ^やつ^めけ^して^しや^れり^めま^しせ^しう。これ、お^せか^い様、精^{とう}出^ふして^ふ豆腐^{とう}焼^ふか^つつ^しや^れ、鰻^{うなぎ}も^し四、五^ひ本^め焼^しか^つつ^しや^れ、冷^ひ飯^{やめし}も^し焼^めか^つつ^しや^れと、(生^{せい}玉^{とう}心^ふ中、262-14)

[23] 此^ぜれ^ひ手^びを^ひ合^あす、是^ぜ非^ひと^も上^あげ^あて^あて^あく^あだ^あさ^あれ^あと^あ言^あ葉^あを^あ尽^あせば^あ聞^あ分^あけて、(鑓^{せき}の^{くわ}権^{くわ}三^{さん}重^{じゆう}帷^い子、358-1)

이와 같은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傾向⑤ 또한 가능한 것으로, 결국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 진행 속도는 活用方式의 관점에서 보면 混合變化에서 強變化로 동일한 변화 과정을 보이는 라行下二段活用の 四段化보다 느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結 論

지금까지 日本語 文法史上 중요한 변화 사실로서 주목되는, 元祿~享保期の 近世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サ行下二段活用動詞(「合する 遣する」上する 任する)의 四段化現象에 대하여, 변화 시 다양한 형태로 보이는 전체적인 傾向을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口語資料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前期 上方語資料 33種(近松 世話浄瑠璃 24種, 紀海音 世話浄瑠璃 7種과 時代浄瑠璃 1種, 版本狂言記 1種)의 四段化 實態 분석 결과를 토대로 單語, 單純動詞와 複合動詞, 活用形, 文體에 따른 遲速 차이와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당시 混合變化에서 強變化로 동일한 변화 과정을 보이는 라行下二段活用の 四段化와의 遲速 차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특히 會話文을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는데, 四段化의 전체적인 傾向을 중심으로 이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單語 별로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合する」의 순으로 四段化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單純動詞의 四段化 진행 속도는 複合動詞의 四段化보다 빠르다.

셋째, 活用形에서 보면 命令形, 終止·連体形·未然形, 連用形の 순으로 四段化가 진행되고 있다.

넷째, 文體의 인 면에서 보면 會話文의 四段化 진행 속도는 地文의 四段化보다 빠르다.

다섯째,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 진행 속도는 라行下二段活用の 四段化보다 느리다.

결국,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는 일률적인 변화가 아닌 單語, 單純動詞와 複合動詞, 活用形, 文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遲速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라行下二段活用の 四段化보다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고찰 결과는 單語, 活用形, 文體 등 그 변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日本語史의 고찰 시, 다양한 연구 방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금후는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본고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未然形의 四段化 진행 속도가 連用形의 四段化보다 빠른 원인과 位相 즉, 男性語와 女性語 간에 따른 遲速 차이 여부를 규명하고, 後期 上方語와의 비교를 통하여 四段化 傾向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坂口至(2001) 「近世中期上方歌舞伎脚本資料に見えるナ変・下一段の四段化について」『筑紫語学論叢・奥村三雄博士追悼記念論文集』, 風間書房, p.292
- 坂梨隆三(1975) 「ラ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国語と国文学』 52-1, pp.52~53
- 『時代別国語大辞典室町時代編4』(2000), 三省堂, p.572
- 鈴木丹士郎(1985) 「解説」『近世語』(論集日本語研究14), 有精堂, p.301
- 飛田良文編(2007) 『日本語学研究事典』, 明治書院, pp.330~332(蜂谷清人, 鈴木丹士郎 執筆)
- 山県浩(1982) 「活用型の変化から見た上方絵入狂言本 -サ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の場合-」『文献探究』 10, pp.40~43
- _____(1983) 「活用型の変化から見た上方絵入狂言本 -ラ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の場合-」『文献探究』 11, pp.66~69
- 山口明穂・秋本守英編(2001) 『日本語文法大辞典』, 明治書院, p.92(藤井俊博 執筆)
- 湯沢幸吉郎(1982) 『徳川時代言語の研究』, 風間書房, pp.59~360
- 金鎔均(2003) 「江戸中期 이후 上方語에 나타나는 二段活用の 一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一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日本學報』 55-1, 韓國日本學會, p.26
- _____(2004)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 -(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 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 _____(2008) 「紀海音의 世話淨瑠璃에 나타나는 라行下二段活用の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江戸中期 上方語資料와의 비교를 중심으로-」『日本研究』 25, 中央大學校 日本研究所, p.12

要 旨

本稿は日本語の文法史上、重要な変化事実として大きく注目される、元禄～享保期の近世前期上方語に現われるサ行下二段活用動詞(「合する」「遣する」「上する」「任する」)の四段化現象について、全体的傾向を中心にし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特に、口語資料としての価値が高い、前期上方語資料33種(近松世話浄瑠璃24種、紀海音世話浄瑠璃7種と時代浄瑠璃1種、版本狂言記1種)の四段化の実態の分析結果に基づいて、遅速差とその原因、それからラ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との遅速差についても検討してみた。その結果、会話文を中心にして幾つかの四段化の全体的傾向が明らかにされたが、これをまとめると、大略次の通りである。

- ① 単語別に見ると、「遣する」、「上する」、「任する」、「合する」の順に四段化が進んでいる。
- ② 単純動詞の四段化は複合動詞の四段化よりは早い。
- ③ 活用形別に見ると、命令形、終止・連体形・未然形、連用形の順に四段化が進んでいる。
- ④ 文体的な面から見ると、会話文の四段化は地文の四段化よりは早い。
- ⑤ サ行下二段活用動詞の四段化はラ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より遅い。

サ行下二段活用動詞の四段化の原因は、当時の有力な活用方式であるサ行四段活用動詞(強変化)からの類推に起因すると思われるが、このような考察を通して前期上方語におけるサ行下二段活用動詞の四段化は単語、単純動詞と複合動詞、活用形、文体によって様々な遅速差を見せながら進んだということと、ラ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より遅い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た。

キーワード：前期上方語、サ行下二段活用動詞、ラ行下二段活用、四段化、遅速差

투 고 : 2009. 8. 31
1차 심사 : 2009. 9. 12
2차 심사 : 2009. 9. 26